

남아공 ANC 의장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

□ Jacob Zuma 전 부통령, 새 의장 선출

- 남아프리카공화국 집권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(ANC ; African National Congress)는 지난 12월 19일, Jacob Zuma 전 부통령을 임기 5년의 새 의장으로 선출
- 남아공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거 반 인종차별정책(Apartheid) 투쟁을 주도했던 ANC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국회의석의 2/3을 점하고 있음.
 - ANC는 1994년 흑인정권 수립 이후, 당 의장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고 있으며, 이 경우 Zuma 신임 의장은 2009년 임기가 만료되는 현 Thabo Mbeki 대통령의 후임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음.
- 1942년생인 Zuma 신임 의장은 남아공 최대 종족인 Zulu족 출신으로, 17세에 ANC에 가입하여 ANC 무장 투쟁 조직인 Umkhonto We Sizwe에서 활발한 투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, 공식 학교 교육은 받지 못함.
 - 악명 높은 로빈섬에서 넬슨만델라 전 대통령등과 약 10년에 걸친 투옥 생활 후 1973년 출소하여 ANC 지하조직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, 이후 모잠비크, 잠비아 등지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ANC의 무장투쟁과 정보 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함.
 - ANC가 합법화된 1990년 이후 사무차장, 전당대회 의장을 거친 후, 1997년 당 부의장, 2005년 부통령에 오르는 등 ANC 최고위급 인사로 주요 요직을 역임함.

- 일관된 친 시장 정책으로 남아공 경제 도약을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로의 지나친 권력 집중 추구로 인해 당내 지지기반을 잃은 Mbeki 현 대통령과는 달리, Zuma 신임의장은 그간의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대중 친화력과 조직 장악력으로 당내 입지를 넓혀 옴.

□ 흑인정권 수립이후 최초 의장 경선 실시

- ANC는 그동안 당내 원로와 지도자급 인사들이 단독 후보를 추대하고 찬반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전통을 유지하여 왔으나, 금번 의장선거는 당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의장 재선을 노리는 Thabo Mbeki 현 대통령 진영과 Zuma 진영의 대립이 첨예하게 대두되어 50년 만에 비밀투표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
 - 당초 박빙의 표대결이 예상되었으나, 4천여명에 이르는 대의원 표결 결과, 2,329표 대 1,505표의 예상을 뛰어넘는 표차로 Zuma 전 부통령의 압승으로 귀결됨.
 - 선거 과정에서 양 진영은 그간 ANC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격렬한 상호비방과 각종 금품제공, 당선 후 이권제공 약속 등의 의혹이 난무하여 향후 당내 갈등의 성공적 봉합 여부가 남아공 향후 정치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
□ 시장우려 불식 및 부패의혹 해결이 당면 과제

- Zuma의 당선은 ANC내 주요 정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좌파 성향의 남아공노총(COSATU ;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) 및 남아공공산당(SACP : South African Communist Party)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함.
 - COSATU와 SACP는 그간 Mbeki 대통령이 시장, 기업,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만을 고집하여 부의 재분배를 통한 흑인계층 복지 향상 및 토지개혁 등에 미진했다고 비판해 왔음.

- Zuma 의장은 최근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그룹과 연쇄적으로 회동을 가지며 자신이 집권해도 주요 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여 왔으나 현 정부의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.
- 아울러, Zuma 의장은 남아공 정부의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 직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부패 혐의로 2005년 이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, 남아공 검찰은 2008년 초 본 사건을 정식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힘.

< 참고 : 남아공 군용 무기 도입 Scandal >

- 1999년, 남아공 정부는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일, 이태리, 스웨덴 영국,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 관련된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전력 강화사업 추진
 - 이후 동 사업과 관련된 리베이트 등 부패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05년, 당시 Zuma 부통령의 경제보좌관이 동 사업과 관련, 사기 및 뇌물수수로 기소되어 15년 형을 선고 받음.
 - 동시에, 남아공 검찰은 동 경제보좌관이 Zuma 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으로부터 무기 도입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Zuma 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
- 아울러, Zuma 부통령은 HIV 보균자인 친구의 딸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,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됨.
 - 재판결과 성폭행 혐의는 벗었으나, HIV 보균자임을 알고 성관계를 가진 후 Aids 감염 예방을 위해 샤워를 했다고 언급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함.
- 이러한 재판 진행과정에서 Mbeki 현 대통령은 Zuma 부통령을 파면하였으나, 지지자들은 이러한 모든 혐의가 대통령이 최대정적을 제압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함.

- 부패혐의 재판결과, 유죄가 확정될 경우 Zuma 의장의 대통령직 취임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지자들의 정치적 음모 주장과 맞물려 남아공 정치상황은 극도의 긴장과 혼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문의 : 책임연구원 유광훈(☎3779-6674)
yu9128@koreaexim.go.kr